

'남원국제도에 캠프' 23일 개막

23~24일까지 국내외 도예작가 기획초대전·초청특강 등 국제행사 온·오프라인 개최

남원시는 제10회 남원국제도에 캠프가 10월 23일부터 24일 양일간 사랑의 광장과 온라인 플랫폼으로(www.nica-camp.com/www.namwon국제도에캠프.kr) 개최된다고 밝혔다.

남원국제도지예술포럼(이사장 김광길)에서 주최하고 전라북도와 남원시가 후원하는 이번 캠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트랙으로 진행되며, 그리스·스페인·일본·미국·중국·영국·터키 등 14개 국가 127명의 작가가 참여해 전 세계의 다양한 도자 작품들을 선보인다.

캠프의 주제는 '오늘이 오늘이어서'로, 남원 도공들이 일본에 끌려가 희망을 잃지 않기 위해 불렀던 노래처럼 코로나 극복의 염원을 행사에 담았으며 국내외 도예작가 기획초대전을 시작으로 초대작가 워크숍 초청특강, 물레경진대회 등 수준 높으면서도 다채로운 국제행사가 이어진다.

특히, 23일 남원 사랑의 광장에서 실시되는 물레경진대회는 전국의 대학생과 대학원생, 전문도예가 및 예술고 등 다양한 계층의 선수들이 전국에서 참여하고, 특히 강진, 여주 등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실력을 발휘한 대장들이 참여해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이석보 대회장은 "이번 남원국제도에캠프는 코로나 극복이라는 대의 속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였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끊임없이 연구하는 작가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에 경의를 표하며, 조선 도공의 예술혼이 살아 숨



쉬는 우리 고장 남원은 세계도자기의 맥을 잇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환주 시장은 "올해로 열 번째를 맞는 남원국제도에캠프는 남원도에 문화에 활기를 불어넣고, 국내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의 작가들이 참여하여 새로운 도예기법과 기술 교류의 장이 되고 있어 더욱 뜻 깊은 행사"라고 전했다. 김광길 캠프 운영위원장은 "이번 캠프를 통



김광길 작 연잎이아기.

해 정유재판의 아픈 역사를 되새겨 보며 그 속에서 피어난 남원 도예의 혼을 21세기 문화산업으로 연계하여 미래 도예발전을 위한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이번 기획초대전은 14개 국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들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로 소개하고,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더 많은 도예인과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이 남원 국제도에 캠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남원 국제도에 캠프는 세계적인 도자기 도자기를 만들어낸 남원 도자 문화의 역사와 우수성을 알리고 국제적인 작가들과의 교류와 전시를 통해 남원 도예 산업의 발전과 세계화를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부안군, 꿈꾸는 베토벤 발표회 개최

꿈의오케스트라 자립 거점기관 기획사업 선정... 23일 부안예술회관서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2021 꿈의오케스트라 자립 거점기관 기획사업에 선정되어 오는 23일 오전 10시에 부안예술회관 공연장에서 발표회를 개최한다.

꿈의오케스트라 자립 거점기관 기획사업은 전국의 자립 거점기관(30개소)을 대상으로 하여 오케스트라와 유기적으로 연결된 활동을 기반으로 예술적 상상력을 더해 참여자의 도전의식 및 다양한 범주의 음악적 감수성 향상에 도움을 주는 공모사업이다.

악기 연주자부터 시작해서 고난과 청각장애를 딛고 최고의 작곡가가 된 베토벤을 롤 모델로 하여 작곡수업과 연습을 통해 창의 융합형 인재육성을 목표로 부안군은 '꿈꾸는 베토벤'이라는 제목으로 동 사업에 공모 선정 받아 추진했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40명의 참여자가 4개월간 작곡한 여름 곡인 '소중한 존재들과 함께하는 여름 여행'과 겨울 곡인 '캐롤메들리' 총 2곡이 발표될 예정이며 부안아리울오케스트라 60명의 단원과 부안군민들이 함께하는 제9회 한문페스티벌에서도 선 보일 예정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지역 내 아동 청소년들의 내면에 있는 상상력과 창조성을 통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순수창작곡을 만들 수 있었다고 말하면서 이들이 연주하는 과정에서 다면적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부안군민만 입장 가능하므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방문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군산시민예술촌, '개복거리예술제' 성료

'예술의 힘으로 미래를 바꾼다' 환경 축제 컨셉으로 축소 진행

군산시는 군산시민예술촌이 2021 개복거리 예술제를 개복동 예술인의 거리 일대에서 무관객으로 성료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개복거리 예술제는 지난 16일 토요일

오후 개복동 예술인의 거리 일대에서 무관객으로 성황리 개최됐다.

이번 개복거리예술제는 군산시간여행축제와 함께하는 거리 예술제로 '예술의 힘으로 미래

를 바꾼다'라는 환경 축제 컨셉으로 축소 진행됐다.

개복동 예술인의 거리는 오방색지로 하늘을 표현해 볼거리를 더 했으며 개복동 이야기, 통기타 공연, 북고댄스, 환경패션쇼, 국악 버스킹, 종이 놀이극 등 예술인의 거리에 걸맞은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했다.

특히 환경 컨셉에 걸맞게 환경실천서약, 내 손안에 분리 배출업 설치, 투명플라스틱 수거 부스가 마련됐으며, 전시에는 '군산 알맹가게', 플라스틱을 줍는 사람들 사람들이 함께 해 예술제의 의미를 더 했다.

코로나19로 인해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시민들을 위해 개복거리예술제 영상은 추후 군산시민예술촌 페이스북과 유튜브 계정에 업로드 될 예정이다.

박양기 시민예술촌장은 "무관객으로 진행되어 매우 아쉽지만 출연자들의 창의적이고 완성도 높은 공연 덕분에 행사가 빛이 났다"며 "앞으로 환경을 생각하는 인식들이 개선되어 청정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군산=남현봉 기자



군산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 가을! 합창에 몰들다

군산시립합창단이 오는 11월 4일 오후 7시 30분, 군산 예술의전당 소공연장에서 제106회 정기 연주회 '가을! 합창에 몰들다'라는 주제로 열린다.

이번 연주회는 우리나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마에스트로 지휘자 송성철(현)시흥시립합창단 지휘자, 김동현(전)광주시립합창단 지휘자와 함께 수준 높은 공연과 클래식 기타 연주로 대중적인 다양한 재미와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첫번째 프로그램은 김영진(상임지휘자)의 Festive Magnificat을 시작으로 송성철(객원지휘자)의 '가을 소나타', '바법의 성', '첫눈 오는 날 만나자' 등의 연주로 시민들에게 가슴 울랄한 향기로운 가을의 기억을 선물한다.

특히 이번 무대를 위해 클래식 기타리스트 김윤호가 매혹적인 선율로 관객들을 찾아온다. 김윤호는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졸업하고 독일(Gesetzburg)국제 기타콩쿨 1위, 스페인(Gredas san diego)국제기타콩쿨 3위 등 우리나라와 국내의 등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연주자다.

마지막 순서로는 김동현(객원지휘자)의 '별, Night Song' 등 전통 가곡부터 대중음악까지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다채로운 음악 색깔을 선보이게 될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정기 연주회는 낭만 가득



한 11월 가을을 맞아 합창으로 음악 여행을 떠나 보자는 의도로 준비했으며, 군산시민들에게 희망과 감동 그리고 힐링의 시간을 선사하게 되는 특별한 공연이 될 것이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람을 부탁했다.

한편 공연은 초중학생 이상 입장 가능하며 공연티켓은 전석 무료로 티켓링크 홈페이지를 통해 예매 할 수 있다. /군산=남현봉 기자

'고창의 울림, 소리길을 열다' ... 내일 남도국악원 동리정사예술단 초청 무대

1~2부로 나눠서 진행

(사)동리문화사업회 회원으로 구성된 동리정사예술단이 오는 진도 국립남도국악원 초청으로 진악당에서 토요일 '국악이 좋다' 무대에 오른다. 오는 23일 오후 5시부터 제1부 소리길의 개척자 동화 재인부대와 제2부 조선 최초의 여류명창 진채선의 소리길을 걸어본다는 소주제로 엮여져 '고창의 울림, 소리길을 열다'라는 주제로 고창의 소리 자랑을 위한 나들이에 나선다.

국립남도국악원은 전통 공연의 상설화와 지역민들의 문화 향수 충족을 통한 국악의 생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3월부터 12월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상설공연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홀수(1, 3, 5)주 토요일은 외부초청 공연으로 진행되는데, 23일에는 고창의 동리정사예술단이 초청됐다.

동리문화사업회는 판소리 이론가이자 개척자이며 후원자였던 동리 신재효(1812~1884) 선생의 정신을 계승하고 판소리 연구 및 각종 문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1990년 동리연구회로 창립된 단체이다.

동리문화사업회는 판소리 최고 권위의 상인 동리대상과 차세대 어린이 판소리 명창을 발굴 육성하는 KBS 전국 어린이 판소리 왕중왕 대회 개최, 판소리 대추제인 대한민국판소리한마당을 주관하고 있다.

프로그램의 제1부는 '소리길 동화 재인부대의 전설에 취하다'라는 주제로 고창동화농민

혁명가(일어나라 이땅의 기운들아), 동화소리(적벽가 중 새타령 대목), 재인부대 무명용사를 위한 춤(계면부리), 재인부대타령으로 무대에 오른다. 제2부는 '진채선, 소리길을 열다'라는 주제로 진채선의 소리(성조가),와 황호준의 신곡 진채선가(꽃 피니 바람 불고 달빛이 구름 인다)과, 진채선가 II(채선의 길), 전라도 아리랑으로 엮어진다.

동리정사예술단 진도 초청 공연의 소리팀 단원으로는 "비조제선"의 유혜은 원진주 정수인 유찬이 정아롱다홍 정호영 김동경 김해인이, 반주팀 단원으로는 가야금 전아란 피리 박창영 해금 김미루 신디 송시준 대금 박정민 아쟁 마도현 타악 오흥민으로 꾸려져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김제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 '카르미나 부라나'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이하는 김제시립합창단(단장 강해원 부시장) 정기연주회가 오는 11월 5일 오후 7시 카르미나 부라나라는 주제로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린다.

이번 정기연주회는 오르프의 출세작이자 대표작 중 하나인 '카르미나 부라나'로 총 25곡을 3부로 나누어 이전 작품 원초적인 리듬 중세의 평성가(Plainchant)를 노래하듯 순차 진행을 고집하는 평이한 선율 반음계를 배제한 편

안한 전음계 화성, 그리고 리듬을 더욱 강조하는 타악기들의 전폭적인 참여를 통하여, 오르프의 음악 언어를 아주 진한 감동으로 전해주는 작품이다.

식전공연에는 김재민 외 3명(에를레시아)이(김재민:고갑소, 에를레시아:에버뮷타임 ost 일문도)를 익숙하고 친숙한 음악으로 위로와 기쁨을 선사할 예정이다. 김제문화예술회관은 코로나19 방역지침에 의

한 거리 두기 좌석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좌석간 이크릴 칸막이 설치, 방역 소독, 발열 체크, 080 안심콜 자가 문진표 작성 등 공연장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시민 안전을 도모할 예정이고, 공연장을 출입하는 모든 관람객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미착용 시 입장이 금지된다.

이번 정기연주회 관람권 배부는 10월 26일 오전 8시부터 현장과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imje.gakr/art)에서 동시 선착순 무료배부한다.

/김제=곽태기 기자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

은혜상사(주)

사회적기업

작업복
단체복

여성기업

판촉물
기념품

안전화
안전용품

사무용 가구
파티션, 앵글,
선반 제작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명찰, 로고
각종 인쇄

대표전화 063)227-4610 N A V E R 은혜상사(주) Q

팩스번호 063)227-4619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903, 1층